

현대건축공간에 나타난 하이퍼텍스트의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ypertext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space

이선미* / Lee, Sun-Mi

심은주** / Shim, Eun-Ju

Abstract

Modern society changes so fast that it makes the borderlines obscure among all the elements in physical environments as well as culture and economy through rapid flows of Network or new media. Also these flows of changes appears and collides everywhere at the same time, which continuously generates heterogeneous environmental factors. For this reason, architecture is required to correspond with circumstances of the day, but it doesn't keep up with the speed of social changes actually because it features physically fixed construction. This research offers new direction and possibilities of architecture space elements using pluralistic and de-centering attributes of hypertext as a counterplan, and finds out how architecture space should correspond with the moving environment of modern society.

키워드 : 하이퍼텍스트, 텍스트이론, 사이버공간

Keywords : Hypertext, Text theory, Cyper space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며 네트워크나 뉴미디어의 빠른 흐름에 의해서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문화, 경제 등의 분야에서도 모든 구성요소들 간의 경계가 모호해 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의 흐름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충돌하며 계속적으로 이질적인 환경요소들을 발생 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은 변화하는 시대의 상황에 적절히 대응 할 것을 요구 받고 있으나 물리적으로 고정된 구축을 특성으로 하는 건축은 사회 변화의 속도를 뒤따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 대응 방법으로 하이퍼텍스트의 다원적이며 탈 중심적인 속성을 이용해 건축 공간 구성 원리의 새로운 방향과 가능성을 제시하며 건축 공간이 현대사회의 유동적 환경에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텍스트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텍스트 이론과 공간과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고 그 흐름을 이어 하이퍼텍스트와 공간과의 상관 관계를 끌어낸다.

2. 하이퍼텍스트의 이론적 고찰

2.1. 텍스트와 텍스트 이론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쓰여 지고 있는 텍스트는 '본문'의 뜻으로 사용되는 일이 가장 흔하며, 일상적 용법¹⁾의 텍스트는 문자로 적혀진 길고 짧은 글을 의미할 때가 많다. 텍스트란 말은 원래 라틴어 'textus'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이 말은 라틴어 동사 'texere(짜다)'에서 파생되었으며 '직물/조직(Gewebe)'을 뜻한다. 일상적 의미의 텍스트란 이처럼 '직물/조직'이라는 이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로부터 언어단위들이 하나의 길고 짧은 글의 조직체로 연결되었다는 뜻으로 전이된 것이다.

수용미학자들은 현상학적 예술이론에 기대어 작가가 창작해 놓은 인쇄물을 '텍스트'라 부르고, 독자가 읽고 재생해 낸 문학 텍스트를 '작품'이라고 하여 생산자 중심의 텍스트와 수용자 중심의 텍스트를 구별한다. 이렇게 텍스트와 작품을 구별하는 것은, 진정한 작품은 수용자를 통해서 그 가치가 실현된다고 보기 때문이다.²⁾

전통적인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선형적이고 순차적인 형태를 취한다. 글을 쓰면서 우리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을 다음에 말하고자 하는 것과 연결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쓰여진 글에서 독자는 저자에 의해 생각된 순서, 스타일에 의해 구조화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과정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조교수

1) 일상적용법이란, 전문성을 띠지 않는 비전문적 이해를 뜻한다.

2) 마르케, 텍스트이론-언어문학통합론의 이론과 실제, 고영근, 대우학술총서448논저, 1999, p.5

된 정보를 만나게 된다. 그 정보 속에서 다른 텍스트들이 참조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자료들은 문서의 본문, 즉 기본 텍스트의 바깥쪽에 존재한다. 전통적인 텍스트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책이다. 책은 각각의 장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책은 물리적으로 독립적인 단위로 존재한다. 책은 자기의 시작과 끝을 자신의 두께를 통해 독자에게 알려준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읽은 양과 읽어야 할 양을 비교함으로써 그 책 속에서 우리가 처한 위치를 가능하게 된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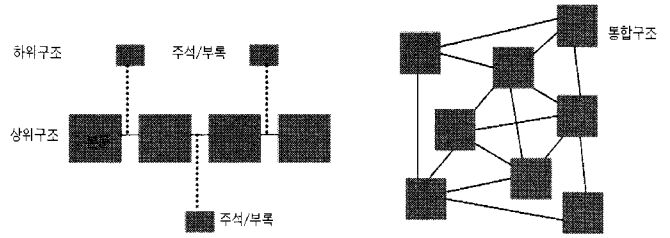
대체로 텍스트는 사람의 의도적인 언어표현이나 언어로 옮길 수 있는 기호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텍스트에는 길고 짧은 일상발화를 비롯하여 문학작품, 문서가 우선적으로 포함되며, 이 밖에도 음성, 음향, 문자, 그림, 사진 등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다중매체도 텍스트로 간주될 수 있다. 텍스트의 범위를 이와 같이 잡으면 텍스트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학문인 텍스트이론(Texttheorie)⁴⁾은 자연스럽게 학제적 성격을 띠게 되며 다른 학문과의 교섭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텍스트이론은 가까이는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을 통합할 수 있고, 시야를 넓히면 자연과학까지도 그 영역 안에 아우를 수 있다. 텍스트이론은 위로는 기호학을 떠받치고 있고 아래로는 언어학을 바닥에 깔고 있으면서 인지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등의 이웃학문과 넘나드는 일종의 통합학문이다.⁵⁾

2.2. 하이퍼텍스트

하이퍼텍스트는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파란색의 밑줄 그어진 텍스트를 말한다. 하이퍼텍스트를 클릭 하게 되면 그 텍스트에 연결(링크, link)된 다른 웹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링크는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⁶⁾을 형성하는 핵심 구조다. 1960년대 컴퓨터 개척자 테오도르 넬슨(Theodor Holm Nelson)이 hyper(건너편의, 초월, 과도한)와 text를 합성하여 만든 컴퓨터 및 인터넷 관련 용어로 컴퓨터 스크린 상에 나타나는 '비순차적인 읽기와 쓰기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다.

하이퍼텍스트는 마디들(Nodes)의 집합이며, 그 마디들을 연결해 주는 이음(Link)에 의해 연결된다. 마디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하이퍼텍스트는 끝과 경계가 없으며 어디서든 시작이 가능하며 어떤 정해진 중심도 없다. 하이퍼텍스트의 모습은 웹 환경에서 보여 지는데 하나의 출발점에서, 누가 쓴 것이든 또 어디에 있든, 바로 다른 마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이퍼텍스트에서는 같은 문장 또는 같은 장이 같은 책으로부터 읽혀질 필요가 없다. 한 페이지 내의 물리적 근접성에 의해 순서가 정해지지도 않고 또 페이지나 장마다 어떤 번호가 매겨지는 것도 아니다.⁷⁾ 예를 들어 한 텍스트의 서론에서 인용 부분으로, 거기서 인용문을 쓴 사람의 전기로, 거기서 그 글을 쓸 시가의 역사적 상황으로 옮겨진다면 독자는 단순히 새로운



<그림 1> 텍스트의 구조와 하이퍼텍스트의 구조

정보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논문의 의도와는 완전히 독립적인 방식으로 마디들을 연결시킨다. 무엇을 무엇과 연결시키며 어떤 생각이 다른 생각의 앞에 나오거나 뒤따라 나오는지를 결정하는데 독자의 자유가 훨씬 더 많이 보장된다.

하이퍼텍스트에서 링크는 동일한 노드 내 한 지점을 연결할 수도 있고, 동일한 웹사이트 한 노드를 연결할 수도 있으며, 다른 웹사이트 한 노드를 연결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 노드로부터 여러 개 노드로 연결할 수도 있다.⁸⁾ 하이퍼텍스트만이 가지는 이런 링크 연결은 하이퍼텍스트 구조에 비선형성, 무경계성, 상호작용성, 다매체성을 가지게 한다.

<표 1> 하이퍼텍스트의 특성

| 비선형성 | 독자(사용자) TEXT 쓰기 상호작용성 | 무경계성 | 다매체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연속적 + 탈중심화 + 컴퓨터 선택의 자유 강조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 의도 사리짐 + 생산적인 사용자 탄생 + 개방적인 결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끊임없는 연결 가능 + 텍스트의 독립성 상실 + 구조적 역동성 같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텍스트 / 시운드 / 그래픽 / 동영상 / ... + 0과 1의 연속으로 비트화되어 표시되는 디지털화에 기인한 것 |

3)이호준, 하이퍼텍스트의 개념을 적용한 도시건축-동대문 프레이타운의 재구성성을 중심으로,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석사논문, 2003, p.6

4)텍스트이론의 발생 초기에는 단순히 문장의 상위단위로서의 텍스트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텍스트 연구를 '텍스트문법(Textgrammatik)'이라 불렀다. 그러나 이 이론이 실용론적 전환에 힘입어 인간의 통보행위를 텍스트로 간주함에 따라 텍스트이론(Texttheorie)' 또는 '텍스트학(Textwissenschaft)'이라 부르는 일이 없지 않았다. 최근에 와서는 그것이 언어학의 한 분과이고 앞으로 언어학이 나가야 할 길이 바로 텍스트의 구조와 기능을 밝히는 길로 이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깊어짐에 따라 '텍스트언어학(Textlinguistik)'이란 말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텍스트를 언어학의 대상인 일상대화뿐만 아니라 문예학의 대상인 문학작품, 수사학의 대상인 각종 문서, 미디어학의 대상인 영상매체를 분석대상으로 삼는 관점에서는 '텍스트이론'이란 명칭이 타당하다.

마르케, 텍스트이론-언어문학통합론의 이론과 실제, 고영근, 대우학술총서448호, 1999, p.9

5)마르케, 텍스트이론-언어문학통합론의 이론과 실제, 고영근, 대우학술총서448호, 1999, 머리말 p.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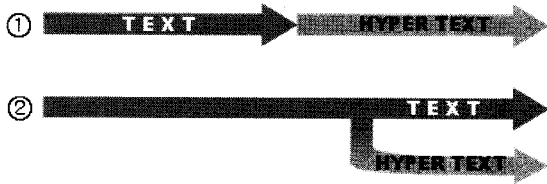
6)World Wide Web≡Web(웹), 동영상이나 음성 따위의 각종 멀티미디어를 이용하는 인터넷을 이르는 말.

7)이호준, 하이퍼텍스트의 개념을 적용한 도시건축-동대문 프레이타운의 재구성성을 중심으로,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석사 논문, 2003, p.7

8)오성진·김용성, 하이퍼텍스트 구조 개념에 의한 디지털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1, p.372

2.3. 텍스트의 연장선으로서의 하이퍼텍스트

하이퍼텍스트는 하이퍼(hyper)와 텍스트(text)의 합성어로 이 역시 텍스트의 한 종류라 할 수 있으며, 텍스트를 초월한(hyper:건너편의, 초월, 과도한의 뜻이므로) 텍스트로 기존의 텍스트 개념에서 갈라져 나온 또 다른 텍스트라 할 수 있다.



<그림 2> 텍스트와 하이퍼텍스트의 관계

위의 그림은 텍스트와 하이퍼텍스트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①번 그림처럼 기존의 텍스트가 있어오다 그 텍스트의 시대가 끝나고 하이퍼텍스트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니라, ②번 그림처럼 기존의 텍스트는 계속 존재하고 발전해 나가는 동시에 하이퍼텍스트라는 개념이 등장하여 텍스트의 연장선으로써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사조들이나 이데올로기들은 대부분이 이전의 사조를 비판하는데서 새로운 사조가 등장하고, 새로운 사조가 등장하면 기존의 것은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하이퍼텍스트 역시 새로운 사조라 할 수 있지만 텍스트의 연장선으로 봤을 때 기존의 텍스트를 비판한다기 보다는 텍스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으며 특징은 다르지만 공간에 적용할 때 그 원리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3. 공간개념으로서의 하이퍼텍스트

3.1. 건축 공간 개념의 변화

인간이 자의적으로 공간을 창조하면서 인간은 우주라는 공간을 인간이 창조한 공간처럼 유한한 공간으로 인식하며 공간의 개념을 철학적,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 우주라는 공간은 16, 17세기에 뉴턴에 의해 유한한 공간이 아닌 절대적인 무한한 공간으로 철학적, 과학적인 공간개념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또한 20세기 초에 이르러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 공간과 시간은 별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복합적인 것으로 발전해 왔다. 이렇게 성장해온 공간은 현대에 이르게 되며, 건축에서의 공간에 대한 사고 유형의 변화 역시 각 시대의 사회사상과 세계관에 따라 변화하여왔다.⁹⁾ 근대 이후 건축 공간 개념의 흐름은, 근대건축문화의 붕괴 이후 근대 건축의 거장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주의 양식¹⁰⁾을 고수하려는 동향이 나타난다. 또한 동시에 그 이념에서 벗어나려는 탈 근대적인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여 모더니즘의 획일성과 무

의미한 근대적 개념의 공간에서 나타난 몰 역사성에 반발하여, 현대감각으로 역사적 양식을 인용한 포스트모던 경향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후 공간의 해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해체주의¹¹⁾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현대 건축은 어떠한 사조로 정의될 수 없을 정도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¹²⁾

3.2.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

사이버공간(Cyber-space)이라는 용어가 근원을 두고 있는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¹³⁾는 어원상으로 보면 원래 키잡이를 뜻하는 그리스어 kybernetes에서 유래한 것으로, 뒤에 로마로 건너가서 governor라는 말을 낳았다. 이처럼 어원상 사이버네틱스는 조종(steer, pilot)과 통제(control, govern)의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조종과 통제의 주체는 바로 인간이며 사이버공간은 바로 인간에 의해서 조종되고 통제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말이다. 이것이 가능한 까닭은 사이버공간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위적 공간은 ‘나는 가설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가졌던 뉴턴의 절대공간과 다르며, 또한 시간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대적 공간과도 다르다. 그것은 인식의 주관과 별개로 실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공간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이버공간의 물리적 의미를 부정할 수는 없다. 사이버공간이 자연과학의 발달에 힘입어서 창조된 공간이라는 점은 엄연한 사실이며, 오늘날 이것을 대표하는 것이 디지털과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으로 대표되고 있는 컴퓨터 통신망이다.¹⁴⁾ 단적으로 말하면, 사이버공간은 기계와 기계의 연

9)김정동, 현대 건축공간의 개념과 공간체함에 관한 연구, 중앙대 건설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p.7
 10)1920, 1930년대에 유럽과 미국에서 발전한 건축양식. 이 양식 건물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직선으로 이루어진 형태이다. 그때까지 응용장식과 치레로 뒤덮였던 표면은 날렵하고 말쑥한 느낌을 주는 평평한 표면으로 바뀌었고, 탁트인 내부공간과 캔틸레버 구조법으로 보기에 가벼운 느낌을 준다. 재료는 주로 유리와 강철이며, 철근 콘크리트로 이것들을 결합시켰다. 주요 건축가로는 발터 그로피우스, 미스 반 데 로에, 르 꼬르뷔제 등이 있다.
 11)1988년 뉴욕의 현대 미술관에서 개최된 <해체주의 건축 Deconstructivist Architecture>에 관한 전시회는 현대 건축의 흐름을 바꿔 놓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전시회는 피터 아이젠만, 베르나르 추미, 램 쿨하스, 자하 하디드, 쿨 험펠 브라우, 다니엘 리베스킨트, 프랭크 게리 등 모두 일급 명의 건축가가 초대 되었는데 이들은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의미론과 통사론을 바탕으로 한 1960-70년대 건축에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고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들은 더 이상 건축을 언어나 기호의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고, 대신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들이 제안한 텍스트, 흔적, 차연 등을 주요 개념으로 받아 들었다.
 12)김형숙, 하이브리드적 공간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동서대 디지털디자인대학원 석사 논문, 2004, p.26
 13)생물 및 기계를 포함하는 계(系)에서 제어와 통신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14)사이보그, 사이버컬처, 홍성태, 서울 문화과학사, 1997, p.30
 또한 홍성태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관점을 동시에 밝히고 있다. “사이버공간이란 물리적으로 보자면 최첨단 컴퓨터 기술인 가상현실기술과

결말에 불과할 뿐이지 실재하는 공간이 아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사람들은 사이버공간이라는 기계적 공간을 스스로 원하는 바에 따라서 언제든지 창조할 수도 있고 없애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만의 인위적인 공간을 만들어간다.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자신만의 공간을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가운데 많은 시간을 컴퓨터와 함께 보내고 있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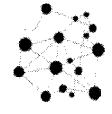



사이버공간은 물리적 공간의 원리들이 적용되지 않는 공간이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도 차원성(dimensionality), 연속성(continuity), 밀도(density)와 같은 물리적 공간에 적용되는 위상학적 규정들이 있다. 이처럼 사이버공간은 물리적 공간처럼, 그 속에 있는 대상이나 사건들의 특성과 거기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의 경험을 질서 있게 기술할 수 있는 객관적 척도를 지니고 있다. 물리적 공간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물리적 실체의 상태와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적 규정과 원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개념적, 추상적 공간이 아니라 실재하는 공간으로 간주된다. 사이버공간 역시 그러한 공간성의 특질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실재한다고 할 수 있다.

3.3. 하이퍼텍스트적 공간

하이퍼텍스트는 사이버공간 상에 존재하는 가상의 텍스트이지만, 하이퍼텍스트의 특징들 중에서 물리적인 공간에서 실제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특징들을 뽑아내어 공간과 하이퍼텍스트와의 상관성을 밝히고 하이퍼텍스트의 특징에 의한 새로운 공간 구성방식에 대한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하이퍼텍스트는 인터넷 상에서 쓰이는 용어로 하이퍼텍스트를 클릭함으로써 그 하이퍼텍스트에 링크되어 있는 다른 웹이나 문서로 이동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하이퍼텍스트는 현재 인터넷의 발달에 큰 역할을 했으며 현대 사회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하나의 커다란 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물리적인 공간에 적용시킨다면, 기존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단절되어 있던 공간들이 하이퍼텍스트와 같은 요소에 의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으며 서로 연결되어 지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하이퍼텍스트적 공간이란, 하이퍼텍스트의 특징을 적용한 새로운 공간 구성 방식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공간이다. 이는 사이버공간이지만 실재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사이버공간과 물리적공간과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둘의 격차를 줄이고자 함이며, 사이버공간을 물리적 공간으로 전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하이퍼텍스트적 공간은 하이퍼텍스트의 특징을 물리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것으로 현대 사회의 구성방식을 건축공간에도 적용하여 사회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가고자함을 나타낸다.

하이퍼텍스트의 공간에서 중심은 이용자 그 자신이다. 또한 네트워크란 텍스트가 흐르도록 만든 선이며, 따라서 모든 텍스트는 흘러야만 그 가치를 보전 받을 수 있다. ¹⁶⁾ 흐르는 텍스트 그리고 그 흐름을 제어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용자 자신이다. 하이퍼텍스트 공간에서는 이처럼 경계 지워진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무수히 많은 선들이 중첩되는 공간이며, 또한 이 선들은 정해져 있지 않다. 무수히 많은 선은 그러나 선형적이지 아니라 비선형적이다.¹⁷⁾ 비순차적인 이러한 흐름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성에 의해 비로소 실현되어지며, 사용자는 각각이 모두 중심이 되는 다중심성을 띄게 된다. 또한 이러한 연속적인 흐름은 시작과 끝이 없는 무경계성의 특징을 갖게 된다.

<표 2> 하이퍼텍스트적 공간의 특성

|  비선형성 |  상호작용성 |  무경계성 |  다중심성 |
|---|---|---|--|
| 정해진 동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원하는 곳으로의 비순차적인 이동이 가능하다. | 공간 이동자는 건축가가 만들어 놓은 공간을 이용하기만 하는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도와 생각이 실제 건축 공간에 반영되어 하나의 건축요소로서의 역할을 한다. | 공간 경계의 모호함을 통해 연속성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다른 공간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 각각의 공간은 모두 특정 기능을 갖고 각자가 전체의 중심이 될 수 있다. 또한 공간의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특성이나 사용시간대, 주변과의 관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

(1) 비선형성

기존의 공간들이 건축가가 정해놓은 동선의 흐름에 따라 움직여야 했다면 하이퍼텍스트의 개념이 적용된 공간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의도 대로 얼마든지 다양한 동선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포털 사이트에서 '디자인'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디자인과 관련된 여러 사이트와 정보들을 볼 수 있는데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는 여러 가지이며 각 선택에서 하이퍼텍스트를 통해 또 다른 사이트로 링크되어져 갈 수 있다, 하나의 웹에서 하이퍼링크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웹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며 이것은 이용자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순서나 짜여진 각본에 의한 것이 아닌 즉흥적이며 개인적인 것으로 그 흐름이 비선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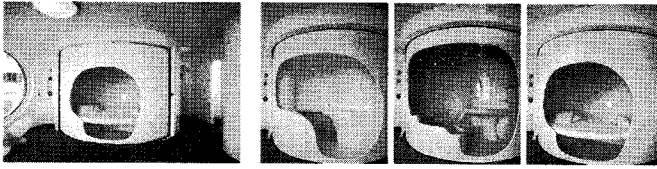
Rotor House의 원통 공간은 이용자의 물리적 이동 없이 원하는 공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러한 공간

통신망의 결합을 뜻하며, 인간의 외계에 존재하는 실체적 공간이 아니라 두뇌작용으로 감지되는 인지적 공간을 의미한다. 즉 사이버공간이란 특별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과 그것에 대한 인간의 인지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공간이란 컴퓨터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공간감을 공간으로 은유한 것일 뿐이다." 같은 책, p.11

15)사이버스페이스와 현실 공간 - 공간 개념의 윤리적 전환, 문성화, 대한철학회 논문집, 2001, pp.88-90

16)비트의 문명 네트워크의 사회, 라도삼,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p.203

17)리츨과 하이퍼텍스트의 관점에서 본 도서관 공간구조 변화의 이해, 김민중, 중앙대 대학원 건축학과 건축설계 및 환경전공 석사논문, 2005, pp.5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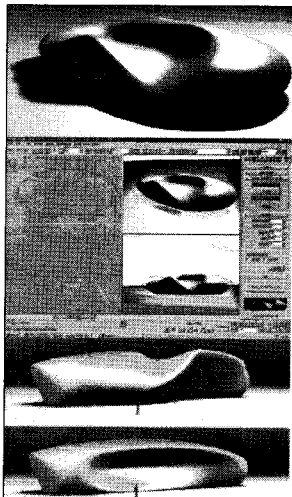


<그림 3> Hanse Colani Rotor House, Luigi Colani
회전하며 바뀌는 내부 원통형 공간

이동 방식은 비선형성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특히 이용자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리모콘 조작을 통해 공간 자체가 이동을 한다는 점은 하이퍼텍스트를 클릭함으로써 원하는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웹상에서의 공간 이동 방식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2) 상호작용성

웹에서의 상호작용성은 사용자와 작가와의 상호작용과 사용자와 TEXT 사이의 상호작용 둘로 나뉘볼 수 있다. 인터넷 소설은 하이퍼픽션으로 불리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하이퍼텍스트 문학의 장르이다. 이런 인터넷소설은 독자의 선택에 따라 소설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이것은 독자의 선택이 없으면 소설이 완결되지 않는 사용자와 작가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다. 기존의 건물들은 대지 위에 고정되어 지어지는 '구축'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자 필수 사항이었다. 그러나 하이퍼텍스트의 특징 중 상호작용성이 적용되어지면 건축물은 더 이상 고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이다. 하이퍼텍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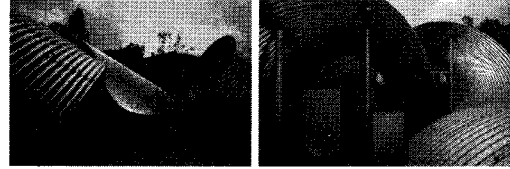
<그림 4> Trans-ports, coosterhuis.nl
소프트웨어에 의한 스페이스 프레임의 변화

는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다른 웹사이트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며 이러한 이동은 새로운 정보를 얻게 해주며 또 다른 이동을 유발한다. 또한 웹에서 사용자는 기존의 웹에 기재된 내용을 본 후 댓글이나 또 다른 글 작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거나 덧붙일 수 있다. 이러한 덧붙이기는 웹에서의 상호작용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Trans-ports'는 건물에서도 이러한 상호작용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3) 무경계성

하이퍼텍스트는 경계가 애매해지는 특징을 지닌다. 여기서 경계라는 것은 하이퍼텍스트가 사용되는 웹에서의 경계로, 하나의 웹에서 다른 웹으로의 이동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공간에 적용시킨다면 하나의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간과 공간을 연결시켜 주는 공간이나 매개공간이 확실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분이 모호해짐으로써 공간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는 내부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내부공간과 외부공간 사이에서도 가능하며 수직공간들과의 관계에서도 가능하다. 이러한 경계의 모호함은 공간에 연속성을 부여하여 다른 공간으로의 자연스런 진입이 가능하게 해준다.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하여 다른 웹이나 문서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 할 수 있다.



<그림 5> 새로운 물결, 엔도슈헤이 건축연구소
구부러진 판에 의한 내외부 공간형성

하나의 판을 조작함으로써 내부이면서 동시에 외부이기도 한 공간을 구성

한 것은 하이퍼텍스트의 특징 중 하나인 무경계성과 유사하다. '새로운 물결'은 하이퍼텍스트에 의해 웹상에서의 이동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지고 뚜렷한 경계가 없어지듯이 공간에서도 공간과 공간사이의 경계가 자연스러워지며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공간은 개방감을 가지며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4) 다중심성

다중심성은 공간들이 각자가 전체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거나 시간대, 사용자, 주변과의 관계에 따라 기능이 변화하는 것 등에 의해 실현된다. 이러한 다중심성은 기존의 건축물이 하나의 중심공간을 갖고 그것을 중심으로 모이거나 퍼져나가는 형태를 취했던 것과는 달리 각각의 공간들이 모두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상에서 하이퍼텍스트에 의해 사용자가 원하는 웹이나 문서로 이동하게 되면 사용자가 현재 이동하여 사용하고 있는 웹이나 문서가 인터넷 전체의 중심이 된다. 사용자에게 의해 중심은 계속해서 변화하게 되며 이러한 이동은 하이퍼텍스트에 의해 가능해진다. 사용자에게 의해 계속해서 변화하는 이러한 다중심성을 공간에 적용하면 사용자에게 의해 공간의 중심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형식을 생각할 수 있다. 공간이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질 때 사용자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 공간을 이동하게 되며 이러한 이동에 의해 각각의 공간은 중심이 되기도 하고 중심에서 멀어지기도 한다. 또한 공간자체가 하나의 기능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시간대나 사용자, 주변과의 관계 등)에 따라 기능이 변화하게 되면 이 또한 조건에 따라 계속해서 중심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OMA의 제벨 알 자이스 마운틴 리조트(Jebel al Mountain Resort)의 건물들은 전체적으로 바위 산 곳곳에 퍼져있는데 <그림 6>처럼 마치 절벽에서 솟아오른 것처럼 꽃혀있다. 이러한 형태는 하나의 중심공간을 향해 부차적인 공간이 늘어선 것



<그림 6> Flak Jebel al Jais Mt. Resort, OMA

이 아니라 각각의 공간들이 서로 중심이 되는 공간, 즉 다중심성을 갖는 공간특성이라 할 수 있다. 서로 시각적으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 각각의 공간은 독립되어 있으며 이러한 독립성은 각각의 공간에 중심성을 부여한다. 또한 리조트 뿐만

아니라 주거공간, 쇼핑몰, 사무실 등 다양한 기능들이 함께 공존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혼재해 있는 공간은 프로그램의 특징에 따라 각각의 공간이 더욱 중심성을 갖게 된다.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전체 공간이 하나의 중심에 의해 돌아가는 기존의 건물 구성방식과는 달리 여러 개의 중심을 갖는 하이퍼텍스트적인 특징을 갖는 건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4. 결론

하이퍼텍스트는 기존의 텍스트를 초월하는 의미의 새로운 텍스트로 컴퓨터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철학, 건축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되어질 수 있다. 기존의 텍스트 이론은 크게는 언어학의 한 분야지만 언어학뿐만 아니라 기호학, 인지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어지고 발전되어왔다. 이는 건축에서도 마찬가지로 텍스트이론을 적용해 건축을 해석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텍스트의 연장선으로서 하이퍼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음을 바탕으로 하이퍼텍스트 또한 건축 공간에 적용시키고자 하이퍼텍스트와 공간과의 관계성을 찾아보았다. 하이퍼텍스트 공간은 비선형성, 상호작용성, 무경계성, 다중심성 등의 특징을 가지며 이러한 특징들에 의해 건축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갖게 된다.

하이퍼텍스트를 클릭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웹사이트로 이동 가능 하듯이 실제 공간에서도 클릭과 같은 간단한 행위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공간으로 이동가능하다면 그것은 혁신적인 공간이동, 공간경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인 공간에서 공간과 공간을 이동할 때 두 공간의 연결공간, 즉 매개공간이 없이 바로 이동하는 것은 한계를 갖게 된다. 그러나 물리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하이퍼텍스트의 특성을 받아들이면 기존의 공간 구성 원리와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공간 구성 원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마르케, 텍스트이론-언어문학통합론의 이론과 실제, 고영근, 대우학술총서448호, 1999
2. 인터넷, 하이퍼텍스트 그리고 책의 종말, 배식한, 책세상문고, 2000
3. 사이버로그, 사이버컬처, 홍성태, 서울 문화과학사, 1997
4. William Mitchell, 비트의 도시, 이희재, 김영사, 1999

5. 여국현, George P. Landow, 하이퍼텍스트 2.0-현대 비평이론과 테크놀로지의 수렴, 문화과학사, 2001
6. 라도삼, 비트의 문명 네트워크의 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7. 성이용, '텍스트'로서의 현대 건축에 관한 연구 - 기호론적 관점에서, 연세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논문, 2003
8. 이호준, 하이퍼텍스트의 개념을 적용한 도시건축-동대문 프레이타운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석사논문, 2003
9. 오성진·김용성, 하이퍼텍스트 구조 개념에 의한 디지털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1
10. 김정동, 현대 건축공간의 개념과 공간체험에 관한 연구, 중앙대 건설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11. 김형숙, 하이브리드적 공간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동서대 디지털디자인대학원 석사 논문, 2004
12. 문성화, 사이버스페이스와 현실 공간 - 공간 개념의 윤리적 전환, 대한철학회 논문집, 2001
13. 김민중, 리좀과 하이퍼텍스트의 관점에서 본 도서관 공간구조 변화의 이해, 중앙대 대학원 건축학과 건축설계 및 환경전공 석사논문, 2005